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을 그 자신처럼 무체로 만들려고 아버지가 왔다. 너희들이 무체가 되면,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질문:** 아버지의 어떤 지시를 따름으로써 너희가 한결같은 요기가 될 수 있느냐?

**대답:** 아버지의 첫째 지시는, “자녀들아, 너희의 몸을 잊어야 한다”이다. 그것을 잊고 너희가 영혼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아버지를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영혼인 나는 비물질 세계의 거주자이다”라는 가르침을 확고히 하여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 육신의 예고가 끝날 것이다. 너희들의 지각에 육신의 존재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너희는 한결 같은 요기가 될 수 있다.

**노래:** 당신을 찾았으니 우리는 온 세상을 찾았습니다. 땅도 하늘도 우리의 것입니다!

움 산티. 누가 이 말을 했느냐? 영혼이 이 말을 했다. '움'은 '나는 평화의 화신이다'라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 할 내용이다. 제일 먼저, 너희가 영혼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영혼인 내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몸을 받는다. 영혼인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저 평화의 대양, 지식의 대양인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의 자녀이다. 그는 항상 평화롭다. 우리 영혼들은 육신을 벗고, 각자의 역할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몸을 취한다. 쉬브 바바는 형상이 없다. 저 영혼은 자신의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형상(몸)을 가진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말을 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언제나 형상이 없다. 브라마, 비슈누, 상카르는 미묘한 형상을 지니는 반면, 나는 형상이 없다. 너희 영혼들도 역시 소리를 초월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거주한다. 형상이 없는 바바가 여기 와서 우리에게 이 지식을 말해준다. 너희 영혼들이 그의 말을 듣는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슬픔의 나라이다. 사람들은 "저희들은 불순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누가 그들을 그렇게 불순하게 만들었느냐? 아버지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아버지를 찬양하여, 어머니이며 아버지라고 노래 부른다. 바라트 사람들 모두가 그분에게서 받은 끝없는 행복을 기억한다. 이것은 형제 관계이며, 너희가 물질 속으로 들어가면 인류의 아버지, 브라마를 통한 창조가 있다. 영혼들은 불멸하지만, 너희들은 이것이 아버지의 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다. 산야시들은 시보흠(나는 쉬바이다)이라고 말하고, 너희들도 역시 그렇다고 말한다. 그들은 신이 편재한다는 말까지 하는데, 그러면 모든 이가 아버지가 된다.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 자녀들은 해방과 삶 속의 해방을 유산으로 차지하려고 소리쳐 부른다. 너희가 여기에 오면, 너희 자신을 영혼으로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하여라. 나는 영혼이다. 내가 지고의 영혼인 것은 아니다. 나는 영혼이며, 우리 모두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의 자녀들인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이다. 너희들 모두가 브라마의 자녀들이며 쉬브 바바의 손주들이다. 모든 이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을 기억한다. 사람들은 “오 신, 아버지시여!”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를 편재한다고 부른다면, 어떻게 너희가 유산을 받을 것이냐? 신봉의 길에서는 모든 이가 신을 기억한다. 신은 단 한 분이며 너희 모두는 신봉자들이다. 신부는 무수히 많으나, 사랑받는 신랑은 단 하나뿐이다. 그는 아버지이며 나머지는 모두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지시는 “오 자녀들아, 이 몸조차도 기억하지 말아라”이다. 너희 자신을 영혼으로 여겨라. 영혼이 “나는 몹시 슬프고 타락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신인 왕국이 없다. 5천년 전에 바라트에는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이 있었다. 왕과 왕비가 그러했듯이, 백성들도 역시 그러했다; 그들은 대단히 행복했다. 결코 불시의 죽음이 없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있었다. 바라트 사람들은 그들의 바라트가 예전에는 천국이었다는 것을 전부 잊어버렸다. 그들은 심지어 하늘에 계신 신,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말한다. 비물질세계는 천국이라고 불릴 수 없다. 우리 영혼들이 비물질세계의 거주자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들은 다른 누구도 기억하면 안 된다. 육체의식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하여라. 쿼바 델라는 합류시대의 아름다운 만남이 아니다. 합류는 철시대의 끝이며 황금시대의 처음이다. 철시대는 불순한 세상이며, 단 하나의 존재도 순수하지 않다. “위대한 영혼들”도 있긴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순수하지 않다. 그들 모두 이 세상이 불순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순수해지려고 쿼바 델라에 간다. 그들은 갠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러니 틀림없이 그들은 불순할 것이다. 현인과 성자들 모두 순수해지려고 거기로 간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극심한 타락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 슬픔을 겪을 때 온다. 나는 와서 그들 모두를 드높여준다. 나는 현인과 성자들 못지 않게 돌 지각들도 드높여주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순수한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순한 세상에는 순수한 자가 아무도 없으며, 순수한 세상에는 아무도 불순한 자가 없다. 그것이 법이다. 성자와 현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대한 영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시보흠(나는 쉬바

이다)“이라고 말한다. 옛날의 위대한 영혼들은 신이 무한하며, 즉 그가 창조자이며, 그의 피조물도 무한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렇다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니르바나의 나라에 데려갈 수 있겠느냐? 그들은 바라트가 삶 속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모른다. 그 당시에는 다른 종교가 하나도 없었다. 단지 태양 왕조와 달 왕조에 속하는 사람들뿐이었다. 태양 왕조에 속하는 자들이 변해서 달 왕조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환생을 해야 했다. 그들은 840 만 번의 환생이 아니라, 84 번 환생한다. 그것은 엄청난 거짓말이다. 브라마의 낮이 있고 브라마의 밤이 있으니, 84 생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설명한다. 이제 다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말아라. 영혼인 나는 가장 사랑받는 분인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의 자녀이다. 온갖 모든 것이 다 신의 형태라고 생각지 말아라. 그건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다. 아버지는 한 분이고 나머지 모두는 자녀들이다. 모든 영혼들이 형제이다. 그런 다음 너희가 몸에 들어가면, 인류의 아버지, 브라마를 고조부라고 부른다. 맨 처음에는 브라민들이 있다. 바라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형상이 묘사되어 왔다. 브라민들은 신의 높은 중에서 가장 높은 자녀인, 상투들이다. 이제 너희는 신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제 너희들은 쉬브 바바의 손자, 손녀, 브라마의 자녀들이 되었다. 모든 영혼들이 쉬브 바바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쉬브 바바에게서 유산을 받고 있다. 쉬브 바바는 너희의 앞자락을 채워주는 분인 반면, 마야는 그것을 쏘아버리는 자다. 정화자는 시타의 라마라고 노래로 불린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각에는 은시대의 라마와 시타가 들어 있다. 너희 자녀들은 황금 시대와 은시대가 행복의 나라라는 것을 안다. 거기에는 슬픔의 이름이나 흔적이 없다. 모든 이의 아버지인 정화자는 단 한 분뿐이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심지어 하누만 사원에 가서도 "당신은 어머니이며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는 분인 정화자는 단 한 분뿐이다. 그는 지식의 대양이다. 대양에서 나오는 강들은 그냥 물이다. 물은 정화자일 수가 없다. 물에서 몸을 씻음으로써 순수해지고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다. 하나는 해방이고 다른 하나는 해방된 삶이다. 구원과 해방의 공여자는 오직 바바 한 분뿐이다. 이것은 불순한 세계이다. 바라트 사람들은 5천년 전에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때에 다른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너희들은 5천년에 관한 것들을 잊어버렸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나중에 존재하게 되었다. 지금은 참으로 많은 확장이 있다. 자녀들아, 너희가 바바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다다나 브라마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여라. 모든 이의 창조자인 쉬브 바바가 여기 앉아서 창조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리쉬들과 무니들은 신이 무한하고, 자기들은 그를 모른다고 말해왔다. 너희 브라민들은 바바가 그 자신과 창조에 대한 지식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는 믿음을 지니므로, 너희들은 유신론자들이다. 그는 너희를 트리칼다르시로 만든다. 리쉬들과 무니들은 트리칼다르시가 아니다. 아버지가 말한다: 신인들조차도 트리칼다르시가 아니다. 오직 너희 브라민들만이 트리칼다르시이다. 이것은 브라민들의 상투다. 새로운 창조는 브라민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너희들이 최고로 높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슈리마트를 따름으로써 바라트를 전체에서 가장 고귀하게 만들고 있다. 슈리마트는 크리슈나가 아니라, 신이 주는 것이다. 크리슈나는 정화자가 아니다. 정화자는 단 한 분이다. 그는 모든 이의 아버지이다. 너희 영혼들이 신체기관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여라. 영혼의식이 되어라! 나는 영혼인 너희들에게 이 지식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트구루가 지식의 연고를 주면 무지의 어둠이 걷힌다는 말이 기억된다. 그는 정화자이며 구원의 공여자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창조하고, 선생이 되어 그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구루가 되어 그들에게 구원을 준다. 오직 구원의 공여자인 한 아버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보낸다. 너희 자녀들은 새로운 세계에 가려고, 즉 인간에서 신인으로 변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불순한 이 인간세계는 끝나고, 그것은 신인들의 세계가 될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신인들을 숭배하면서도, 자기들이 틀림없이 신인 종교에 속한다는 것을 모른다. 종교는 그들이 숭배하는 자의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바라트 사람들은 원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를 가졌었다; 그것은 천국이었다. 지금 사람들은 인간들이 840 만 번의 생을 취한다고 말한다. 그들 전부가 그만큼의 생을 취하느냐? 그렇게 많은 수십만 번의 생이 있었다면, 너희에게는 그렇게 긴 사이클이 필요할 것이다. 예정된 이 연극은 드라마에 의해서 창조된다. 지난 것은 무엇이든 드라마이다. 오직 너희 자녀들만이 비물질세계와 서틀 리전을 안다. 너희 자녀들은 스와다르산차크라다리이다. 저 사람들은 비슈누가 스와다르산차크라라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비슈누의 두 가지 형태, 즉 락쉬미와 나라얀은 스와다르산차크라다리가 아니다. 오직 너희 브라민들만이 스와다르산차크라다리이다.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저 사람들은 크리슈나가 스와다르산차크라를 전쟁에서 사용했으며, 그걸로 카우라바들을 죽였다고 이야

기한다. 그러나 신인들은 결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2 중으로 비폭력적이다. 그들은 어떤 악덕도 갖고 있지 않으며, 전쟁을 하지도 않는다. 가장 큰 폭력은 서로에게 독을 마시게 하는 것, 정욕의 칼을 쓰는 것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슬픔을 겪어왔다. 황금시대에는 그들이 정욕의 칼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악덕 없는 왕국이었다. 그들은 모든 미덕으로 가득했고, 완전히 악덕이 없었으며, 가장 높은 행동수칙을 따랐다. 폭력은 없었다. 지금 이때는, 라반의 왕국이다. 어디에나 5악이 있는 반면, 저 사람들은 신이 편재한다고 말한다. 지난 100 년 동안에 과학을 통해서 발명된 비행기 등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들은 충분히 사용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미래에 너희에게 유용할 것이다. 지금 이때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며, 그 다음 그것들은 행복을 주는 데 사용될 것이다. 여기에는 슬픔과 더불어 행복도 있다. 이것은 마야의 화려함이라고 불린다.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람들은 소리쳐 부른다: 정화자여, 오소서! 내가 와서 무엇을 해야겠느냐? 바바, 저희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와서 다시 한번 천국을 세워주소서! 아버지가 설명한다: 자녀들아, 이 연극은 예정된 것이다. 아버지는 행복의 나라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라반이 그것을 슬픔의 나라로 만든다. 침묵의 나라에서 영혼들은 처음에 행복의 나라로 먼저 간다. 오직 순수한 영혼들만 간다. 지금 현재는 모든 영혼이 불순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바를 기억하며 소리쳐 부른다. 아버지도 역시 드라마의 굴레에 묶여 있다. 아버지가 말한다: 모든 이가 슬픔을 경험할 때 내가 온다. 이것은 철시대의 끝과 황금시대의 시작이 합쳐지는 합류이다. 사람들은 합류 장소에서 콤바 델라를 가진다. 그것은 대양과 물의 강들의 만남이다. 너희는 이것이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과 우리 영혼들의 합류라고 말한다. 바바는 그 자신의 몸이 없다. 아버지가 말한다: 자녀들아, 너희에게 지식을 주려면 나는 반드시 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입양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브라마를 통해서 직접 신 앞에 왔다. 너희들은 자기가 신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안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묻는다: 내가 어떻게 올 수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들어와야 하느냐? 나는 틀림없이 불순한 세계에 와서 불순한 몸에 들어와야 한다. 지금은 너희들 모두가 추하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들 모두가 아름다웠으나 이제는 추해졌다. 너희 모두의 이름은 시암 순다르(추하고 아름다운)이다. 이제 너희는 추해졌다. 크리슈나는 시암 순다르라고 불린다. 초기에 바라트는 정녕 아름다웠다. 그것은 황금시대였고 원소들은 최상급이었다. 거기에는 장애나 불구인 사람이 없었다. 크리슈나는 넘버원의 시암 순다르 영혼이다. 쉬브 바바는 이 사람(브라마)의 육신에게서 지원을 받고, 너희 자녀들과 더불어 그를 추한 데서 아름답게 만든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

#### 실천 요지:

1. 우리 브라민들은 가장 높은 상투이다. 이 도취감 속에 머물며, 슈리마트를 따름으로써 바라트를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봉사를 하여라. 유신론자가 되고 남들도 그렇게 만들어라.
2. 몸의 교만을 버리고 영혼의식이 되어라. 형상이 없는(무체의) 이들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여라.

**축 복:** 카르마 요기가 되어 모든 행위에서 요그욕트하고 욱티욕트한 한결같은 요기가 되어라. 카르마 요기 영혼의 모든 행위는 요그욕트하고 욱티욕트할 것이다. 너희의 행위가 평범하거나 낭비적이라면 너희는 한결같은 요기라고 불릴 수 없다. “한결같은 요기”라 함은 너희들의 기억의 토대가 사랑이라는 뜻이다, 즉 너희는 사랑하는 이를 저절로 기억한다. 사랑의 대상은 뭐든 너희를 끌어당긴다. 매 1 초 1 초는 물론이고 모든 생각, 말을 변함없이 고귀하게 하고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한결같은 요기인 카르마 요기라고 불릴 것이다.

**슬로건:** 노력하는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랑의 그네를 계속 타라.

\*\*\* 음 산티 OM SHANTI \*\*\*